

고립된 조각의 투명함이 담지한 (불)가능성

김현주(독립큐레이터)

이용철의 <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한 투명한 조각 연구>는 배경을 스펙터클하게 처리하여 대상의 존재감을 두드러지게 만드는 크로마키의 관습을 역전시켜 디지털 환경을 절대적 가능 세계로 맹신하는 세대에서 조각의 물성이 지닌 감각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. 본 연구는 파란색 유화로 채색하고 리퀀 처리한 조각을 두 개의 영상을 합성하는 기술인 크로마키의 색 분리 방식을 통해 투명하게 처리하여 이를 실시간 스트리밍하는 실험이다. 블루스크린 혹은 그린스크린을 통해 주로 배경을 영상 처리하는 크로마키는 매일 접하는 일기예보부터 컴퓨터 그래픽을 포스트프로덕션 단계에서 행하는 블록버스터 영화에 이르기까지 가상을 현실보다 더 현실감 있게 전하는 장치로 이용된다. 디지털 환경에서 극대화되어 역능이 고조된 이 효과를 이용철은 조각에 대한 질문지로 전환시킨다. 대상과 주변 혹은 대상과 배경에서 주변이나 배경에 처리하여 대상의 존재감을 고조시키는 기존의 처리 대신 조각이라는 대상을 크로마키한 이 리서치에서 스트리밍되는 조각은 스트리밍 환경과 실제 조각이 배치된 현장의 모습이 대조적이라서 아이러니를 자아낸다. 경기창작센터 테스트베드 실험을 포착한 사진 한 장은 나무 좌대 위에 놓인 기초적인 조형 형태가 반영된 푸른색 조각과 이를 비추는 두 대의 조명기를 담는다. 조형 연구로 불려도 무방할 듯 보이는 이 디스플레이가 실시간 스트리밍 화면에서는 투명 조각 작품으로 전송되는데 특이하게도 이 작품은 스트리밍 될 때 사람을 관통한다. 아이패드의 Veescape 어플을 사용할 때 반투명하게 처리되는 효과를 '선택'하여 조각을 고립시키지만 이 고립은 '선택'에 따른 '의도'로 읽힌다. 부정 형식으로 최소화된 조각의 물성과 이 조각의 가장 미미한 윤선이 그것이 사람이든 사물이든 가릴 것 없이 관통할 때 예술에서 조각의 위치와 존재에 대해 강력하게 호소하는 듯하다. 따라서 이용철의 리서치는 과학 기술이란 보철을 등에 업고 있으면서도 정공법으로 조각에 다가선다.